

연구논문

# 농가의 자산 및 부채선택행동에 관한 연구<sup>1)</sup>

- 도시가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 현 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Asset and Debt Choice Behavior of Rural Households  
- compare to Urban Households -

Hyuncha Choe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asset and debt choice behavior of rural households as well 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asset and debt choice behavior between rural and urban households. The data are taken from Korean Household Panel Study conducted in 1996 by Daewoo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mong 2, 833, a final sample of 2, 625 -537 rural and 2, 088 urban sample- is used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 that, the asset and debt choice behavior of rural households is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f urban households. The ratio of rural households holding all types of financial assets and sales credit is less than that of urban households while the ratio of holding real asset and loan is greater in rural than urban household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on the ownership of asset and debt is the age of household head. And there exist interrelationships between ownership of different assets and debts.

**Key Words** : Asset, Asset ownership, Debt ownership, Debt outstanding, Rural Household

## I. 서 론

현대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따른 소득증가는 저축여력을 증가시켰으며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금융자산의 상품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어 가계의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가계투자행동은 잉여자원의 확보수단으로 용이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제적 자원의 증가는 재테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으나 최근의 금융시장환경의 변화는 소비자로서 하여금 더욱 어려운 의사결정 상황에 직면하게 했다. 잇따른 금리자유화 조치와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 시판하고 있으나 이들 상품을 비교 구매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금융상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은 가계의 투자행동을 크게 변화시켰을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의 발급이 용이해짐에 따라

1) 본 연구는 1997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일반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신용카드의 소지 및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할부 금융업의 확대로 자동차 등의 내구성 소비재는 물론 주택까지도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비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한된 보유자원을 전 생애에 걸쳐 배분하게 되며 이러한 배분행동은 소비와 저축 즉 자산과 부채선택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종래의 가계는 소비자로서의 제한된 역할만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으나 현대의 가계는 소비자인 동시에 투자자 즉 저축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소비자는 현재소비를 위해 재화를 구매하며 소비되지 않는 자원을 현금 혹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함으로써 가계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가계는 저축을 통해 미래소비수준의 향상과 부의 극대화 및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자의 역할을 한다.

가계투자행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계관리의 분석방법은 가계와 생산요소시장의 교환활동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비재 시장과의 교환활동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자산선택행동을 중요하게 다루지 못하였다(김순미, 1987). 소비자의 자원배분행동 중 소비행동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으나 자산 및 부채선택행동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소비자의 자산 및 부채선택행동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자산선택행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주로 저축을 투자이고 연기된 소비로 보고 소비자의 저축행동을 연구하였으며(김정숙, 1996; 양세정·이영호, 1996) 자산의 관리 측면에서 가계의 투자행동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양정선, 1992; 정운영, 1996; 정은주, 1991). 김순미(1987)와 김규환(1995)은 소비자자산 중 특히 금융자산의 선택행동을 연구하였으나 이들 연구는 모두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한 것들이다. 소비자의 부채수요에 관한 것으로 성영애·양세정(1995)과 최현자(1996)

의 연구가 있으나 이들 연구는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부채의 구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개별 소비자의 다양한 형태의 부채에 대한 선택행동을 다루지 못한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농가의 경우 도시가계와는 다른 소득흐름과 금융시장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이들의 저축행동 즉 자산선택행동과 부채선택행동은 도시가계와는 다른 양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가계의 자산에 대한 수요는 동시에 부채에 대한 수요를 의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수요간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자산과 부채수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성은 가계의 투자위험에 대한 대비측면에서의 가계의 포트폴리오 구성 맥락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가계는 저축행동이나 투자행동을 할 때 어느 하나의 자산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산을 선택하여 가계포트폴리오를 형성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가계의 투자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산 및 부채선택행동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자산과 부채 선택 행동을 살펴보고 도시가계와의 비교를 통해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들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을 규명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소비자는 적정 소비수준을 전 생애에 걸쳐 유지하고자 하며 비지속적인 소득으로 인해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저축을 이용하거나 혹은 차용을 함으로써 이를 해결한다. 이러한 일련의 자원배분과정은 소비자의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며 현재의 경제적 상태와 가족 특성에 따라 소비자는 회구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소비자의 자산과 부채선택을 설명하는 이론적인 틀로

서 기간간효용극대화이론 (Intertemporal utility maximization theory) 과 포트폴리오이론 (Portfolio Theory) 을 살펴보고 가계의 자산과 부채선택행동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가계의 자산 및 부채선택행동 관련 이론

### 1) 기간간효용극대화이론 (Intertemporal Utility Maximization Theory)

기간간효용극대화 이론은 1930년 Fisher가 주장한 이래 기간간의 소비자의 자원 배분을 연구하는데 널리 이용되어 왔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기간간의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간간에 자원을 배분하며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생애의 소득 흐름이 비지속적일지라도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축을 하거나 차용을 할 수 있게 한다. 소비자들은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현재의 회구 소비수준보다 낮을 경우 미래 소득을 이용하여 차용을 하며 또한 현재 소득이 현재 소비수준보다 높을 경우 저축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어느 시점에서 소비를 하고 저축 혹은 부채를 이용할 것인가 하는 시간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효용함수와 무차별곡선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의 선호에 달려 있다. 즉 소비자가 어느 한 시점에서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선호체계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소비시점에 대해서도 선호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time preferences) 이는 소비자의 효용함수로 표현된다. 미래의 소비에 비해 현재의 소비를 선호할 경우 이러한 소비자는 현시점에서의 좀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기 위해 기꺼이 미래 소득을 이용하여 차용할 것이며 이는 부채의 형태로 소비자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기간간 효용극대화이론에 의하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수요는 소비자의 부와 시간 선호 그리고 시장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S_{jt} = S_{jt}(W_{jt}, r_{jt}, P_{jt}) \quad (1-1)$$

여기서  $S_{jt}$ 는 t때에 가계j가 보유하고자 하는 j라는 자산 혹은 부채에 대한 수요이며  $W_{jt}$ 와  $P_{jt}$ 는 각

각 그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와 시간선호를 그리고  $r_{jt}$ 는 가계j가 이용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이자율을 말한다.

### 2) 포트폴리오 이론 (Portfolio Theory)

투자결정은 투자자에게 주어진 투자기회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투자기회를 선택하는 것이다. 가계는 저축이나 투자에 의해 미래에 획득할 자산이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험하며 현실적으로 가계가 저축하고 투자하는 대안들 중 많은 부분이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순수위험과는 다른 것으로 어느 투자안으로부터 얻어지게 될 미래의 현금흐름 또는 수익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변동성을 의미한다(이필상, 1994).

일반적으로 부의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계는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는 투자안을 선호하게 되나 수익과 위험은 항상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추구하다 보면 또한 높은 위험을 안게 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계는 수익과 위험을 선택해야하는데 이는 수익과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위험에 대한 태도는 위험추구형 (risk seeker), 위험회피형 (risk averser) 그리고 위험중립형 (risk neutral)으로 구분된다. 위험추구형의 가계는 동일한 기대수익을 제공하는 투자안들이 있을 경우 더 위험한 투자대안을 선택하며 위험회피형은 그와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자란 위험회피형을 말한다. 위험중립형은 기대수익이 동일한 투자대안들에 대해서는 어느 것을 선택하든 관계가 없는 투자자를 의미한다.

이와같이 투자결정의 기준을 기대수익의 극대화로 하는 경우 위험과의 상충관계로 인해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없으며 실제로 투자자들은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대수익 자체보다는 그것이 주는 만족의 정도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만족의 정도를 효용 (utility) 이라고 하며 새로운 투자결정의 기준으로 기대효용의 극대화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되었다. 즉 투자자는 기대수익이 가장 큰 투자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익이

주는 효용의 기대값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때 기대효용이란 불확실성 하에서 수익뿐 아니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각 상황에서 투자안으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에 대한 효용들의 기대값의 합이다. 기대효용이란 기대수익과 위험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기대수익과 위험은 각각 평균과 분산으로 측정된다. 평균-분산 이론에 의한 투자결정은 우선적으로 지배원리에 의해 투자안을 평가하고 즉 동일한 기대수익(평균)을 나타내는 투자안들 중에서는 위험(분산)이 적은 투자안을 선택하고, 동일한 위험을 가진 투자안들 중에서는 기대수익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한 다음 위험회피도를 감안하여 가장 큰 만족을 주는 투자안을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투자자는 한 개의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자산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는데 포트폴리오란 이렇게 여러 자산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투자의 형태로서 자산의 결합을 의미한다(이필상, 1994). 협의의 개념의 포트폴리오란 여러 종류의 주식(stock)의 군을 의미하며 광의의 포트폴리오란 여러 개의 자산이 결합된 자산군을 뜻한다(박정식, 1993).

평균-분산이론이라고도 불리는 포트폴리오이론은 가계가 저축행동을 하는데 있어 여러 개의 자산으로 결합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박정식, 1993). 즉 가계가 두 개 이상의 자산에 동시에 투자한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포트폴리오 위험은 개별자산의 위험보다 줄어들게 됨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가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 항목수가 많을수록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감소되는 현상을 위험분산효과 또는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Markowitz(1952)의 논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에 따르면 합리적인 투자자는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대상의 미래수익률에 대한 확률분포를 작성하여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뒤 평균-분산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전체 포트폴리오 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위험을 갖는 포

트폴리오를 최소분산포트폴리오(minimum variance portfolio)라고 하며 마코위츠의 효율적 투자선(efficient frontier)이라고도 한다. 즉 투자기회집합 전체에 대해 지배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투자자의 최적포트폴리오 선택이란 자신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반영된 저마다의 효용무차별곡선에 입각하여 효율적투자선상에서의 선택을 의미한다.

## 2. 가계의 자산 및 부채선택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고찰

다양한 형태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은 인플레이션, 이자율, 정부정책과 같은 소비자외적인 요소뿐 만 아니라, 연령, 소득, 부, 위험태도와 같은 소비자 내적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가계의 내적요인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가계의 자산 및 부채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소득, 총자산, 가구주의 교육수준, 가구주의 직업, 주거소유형태, 가구주의 성별, 및 가족수 등을 들 수 있다.

가계소득은 여러 연구들(성영애·양세정, 1995; 양세정·이영호, 1996; 최현자, 1996; Avery & Kennickell, 1991; Bryant, 1986; Chang, 1994; Davis & Schumm, 1987; Hira, 1987, 1992; Prather, 1990; Weagley & Gannon, 1991; Xiao, 1995, 1996)에서 가계의 저축행동 즉 자산선택행동과 부채선택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가계의 자산 및 부채선택행동과의 관계를 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자산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더 컸으며 부채 보유액과 부채비율도 높게 나타났다(Xiao, 1995, 1996; Yu, 1993).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가구원수 또한 가계저축규모에 부적 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수의 영향은 이명훈(1985)과 이계식(198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가족수와 부채수요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Hira, 1990; Sullivan & Worden, 1986; Yu, 1993)에서는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담보부채보유액과 소비자부채보유액 뿐만아니라 부채부담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Titus, Fanslow & Hira(1989)의 연구에서는 가족크기와 저축수준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주성별에 따른 자산 및 부채행동의 차이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 재정적 손실에 대해 더욱 위험회피적이었으며 여성가구주가계의 경우 부채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Yu, 1993). Weagley & Gannon(1991)에 의하면 가계는 저축행동이나 투자행동을 할 때 어느 하나의 자산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산을 선택하여 가계포트폴리오를 형성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자 한다. 개별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가 증가할 때 위험자산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이 포트폴리오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Donnelly, 1985).

미국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급증하고 있는 가계의 부채수요를 설명하기 위해 미시와 거시수준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대부분의 거시수준의 연구는 총 가계부채나 소비자부채의 증가에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Smith, 1979; Luckett & August, 1985; Pollin, 1988, 1990). 가계를 대상으로 한 미시적인 연구는 담보부채보다는 주로 소비자부채의 이용에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한 부류는 한 시점에서의 저항의 관점에서 부채수요에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고자한 연구들이며(Avery, Elliehausen, & Canner, 1984; Sullivan & Worden, 1986; Watts & Tobin, 1960) 다른 한 부류는 일정기간 동안의 유량의 관점에서 소비자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관련하여 부채수요를 연구한 것들이다(Bryant, 1986; Choe & Johnson, 1992; Dunkelberg & Stafford, 1971; Watts & Tobin, 1960).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수요에 관련한 것으로 경영애·양세정(1995)은 1990년 가계 금융이용실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부채보유여부와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최현자(1996)는 1991년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의

소득계층별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부채의 구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개별 소비자의 다양한 형태의 부채에 대한 선택행동을 다루지 못한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농가의 자산 및 부채선택행동은 어떠한 도시가계와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농가의 자산 및 부채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종류의 자산 및 부채의 보유여부와 보유액의 도농간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보유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실증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실증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이론적인 배경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계의 자원인 가계소득(Y)과 순자산(W), 그리고 가계의 선호를 대변하는 사회·인구학적특성(P)인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혼인상태 및 성별 그리고 주거보유여부를 포함시켰다. 또한 자산 및 부채 선택행동의 상호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보유여부( $S_{k(k \neq i)}$ )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3-1)과 같다.

$$S_i = \beta_0 + \beta_1 W + \beta_2 Y + \sum \beta_j P_j + \sum \beta_k S_{k(k \neq i)} + \varepsilon \quad (3-1)$$

( $S_i = 1$  :  $i$ 번째 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S_i = 0$ )

자산은 크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하여 금융자산은 예·적금, 주식·채권, 보험, 계·사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실물자산은 가계가 주거용 주택이외에 보유한 부동산으로 토지, 주거용이외의 주택, 및 상업용건물등으로 구성된다. 부채는 공여방법에 따라 현금부채(loan)와 판

매신용(sales credit)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계의 자원변수와 가구원수 및 연령을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는 가변수화하여 실증분석에서 사용하였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우리 나라 도시가계와 농가의 자산 및 부채선택 행동을 파악하고 그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우경제연구소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4차에 걸쳐 실시한 한국가구패널조사(KHPS)의 원자료중 4차자료를 이용하였다<sup>2)</sup>. KHPS는 각 조사시기 마다 표본수의 차이는 있지만(1차 4,547가구, 2차 3,625가구, 3차 3,108가구, 4차 2,833가구) 패널자료의 특징인 동일한 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지난 4년 동안의 주생활실태, 가구소득, 가구소비, 자산 및 부채 등과 같은 가계의 경제활동의 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료이다.

자료의 조사 기준일은 1996년 8월 1일이며, 표본가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다단계 층화확률표본추출에 의하여 추출된 표본 중에서 4차 추적에 성공한 2,833 가구로서 부실 기재된 가계를 제외한 총 2,625 가구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가를 군부에 거주하거나 직업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가계로 정의하였으며 총 537가구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도시가계는 서울, 5대도시 및 소도시에 거주하며 가구주가 농림수산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가계로서 모두 2088가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자산 및 부채선택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기 다른 형태의 자산 및 부채보유여부를 빈도와 백분율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이들 보유가계의 평균보유액을 평균분석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도시가계와의 차이는  $\chi^2$ 와 t-검정을 수행하여 알아보았다. 종류별 자산 및 부채보유여부 결정요인은 로짓분석을 통해 규명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3. 표본가계의 일반적인 특성

다음 <표1>은 표본농가와 도시가계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표본농가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평균 가구원수는 3.6명으로 도시가계와 차이가 없는 반면 구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농가는 2명 이하의 소가족과 5명 이상의 대가족 형태가 주를 이루는 반면 도시가계는 4명 가계가 전체 표본도시가계의 1/2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농가의 고령화현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농가가구주의 평균연령이 54세 인데 비해 도시가계는 유의하게 낮은 45.8세이며 농가는 60대 이상이 전체 표본농가의 38%인데 비해 도시가계는 18.6%에 불과하다. 농가가 도시가계에 비해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높으며 결혼은 하였으나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주거보유형태를 보면 농가의 85.1%가 자가로 보유하고 있어 도시에 비해 높은 자가보유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득과 지출수준은 도시가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가와 도시가계는 처한 금융시장환경 뿐만 아니라 가계의 특성으로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자산 및 부채선택으로서도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농가와 도시가계의 자산선택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자산종류별로 보유여부와 보유액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산선택행동의 차이를 보기 위해 금융자산 중 예·적금을 위한 금융기관선택행동의 차이를 보았으며 보험의 종류별로 보험보유여부와 보유액을 통해 보험선택행동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또한 부채의 종류별로 보유여부와 보유액의 차이를 검정함으로써 농가와 도시가계의 부채선택 행동의 차

2) 본 연구가 수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임.

〈표1〉 표본가계의 일반적인 특성

가 계 특 성		농 가 n=537 (100.0)	도시가계 n=2088 (100.0)	빈도(%) $\chi^2 / (t값)$
가구원수 (단위 : 명)	2명이하	165 (30.7)	335 (16.0)	143.80***  (-1.61)
	3명	79 (14.7)	349 (16.7)	
	4명	126 (23.5)	949 (45.5)	
	5명이상	167 (31.1)	455 (21.8)	
	(평균)	3.6	3.7	
가구주성별	남	467 (87.0)	1898 (90.9)	4.61**
	여	70 (13.0)	190 (9.1)	
가구주혼인상태	기혼	445 (82.9)	1844 (88.3)	20.43***
	유배우자			
	무배우자	83 (15.5)	188 (9.0)	
	미혼	9 (1.7)	56 (2.7)	
주거보유형태	자가	457 (85.1)	1251 (59.9)	166.73***
	전세	46 (8.6)	653 (30.4)	
	월세	18 (3.4)	156 (7.5)	
	기타	16 (3.0)	46 (2.2)	
가구주연령	30대이하	102 (19.0)	855 (41.1)	196.20***  12.36***
	40대	104 (19.4)	516 (24.7)	
	50대	127 (23.7)	329 (15.8)	
	60대이상	204 (38.0)	388 (18.6)	
	(평균)	54.08	45.81	
소득(만원)	(평균)	131.28	212.61	-10.14***
지출(만원)	(평균)	100.52	149.72	-12.34***

\*\*\* p < 0.01 ; \*\* p < 0.05 ; \* p < 0.1

이를 파악하였다.

### 1. 농가와 도시가계의 자산선택행동의 차이

농가와 도시가계의 자산보유여부는 모든 종류의 자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거나 이들 가계의 자산보유액은 총자산과 주식·채권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었다. 전체농가 표본의 81.4%가 어떠한 형태로든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가계는 이보다 많은 86.9%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경우 전체 표본의 67.8%가 적어도 한 종류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

으며 도시가계는 10가구중 8.5가구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농가의 생산자적인 특성으로 인해 도시가계보다 현저히 높은 보유비율을 보였다. 금융자산의 보유형태를 보면 농가와 도시가계 모두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가계의 보유비율이 유의하게 높다. 그러나 보유액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농가는 평균 1052만원의 예·적금을 보유하고 도시가계는 1131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농가와 도시가계의 예·적금행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예·적금시 선택하는 금융기관

〈 표2 〉 자산종류별 보유여부와 보유액의 차이

단위 : 빈도(%) / 만원

자산의 종류	보유가구비율			보유가구의 평균보유액			
	농가 (n=537)	도시 (n=2088)	$\chi^2$	농가	도시	t-값	
	364 (67.8)	1,767 (84.6)	79.31**	1645.9	2294.5	-1.80	
금융자산	예·적금	303 (56.4)	1,526 (73.1)	56.11***	1052.5	1131.3	-0.61
	주식·채권	33 (6.2)	208 (10.0)	7.46***	3896.7	5768.3	-2.56**
	계·사채	58 (10.8)	471 (22.6)	36.69***	1111.8	1105.1	0.02
	보 험	250 (46.6)	1,323 (63.4)	50.24***	468.3	548.1	-1.27
실물자산	255 (47.5)	374 (17.9)	205.04**	9653.3	11018.2	-1.10	
총 자산	437 (81.4)	1,815 (86.9)	10.79**	7003.9	4504.3	3.20**	

\*\*\* p < 0.01 : \*\* p < 0.05 : \* p < 0.1

〈 표3 〉 금융기관선택행동 차이

단위 : 빈도(%) / 만원

금 용 기 관	이용가구비율			이용가구의 평균이용액		
	농가 (n=537)	도시 (n=2088)	$\chi^2$	농가	도시	t-값
은행	166 (30.9)	1,381 (66.1)	219.22***	1,032.2	960.1	0.62
투신, 증권, 종금	4 (0.7)	100 (4.8)	18.86***	830.0	1,679.9	-2.41
신탁	33 (6.2)	104 (5.0)	0.23	857.7	634.8	1.18
상호신용금고	6 (1.1)	27 (1.3)	0.00	876.0	1,140.9	-0.68
우체국	28 (5.2)	47 (2.3)	9.34***	343.4	335.9	0.07
농, 수, 축협	124 (23.1)	102 (4.9)	221.28***	781.6	597.3	0.81

\*\*\* p < 0.01 : \*\* p < 0.05 : \* p < 0.1

의 도농간 차이를 알아 보았다(표3 참조). 그 결과 농가는 도시가계에 비해 농, 수, 축협과 우체국을 많이 이용하는 반면 도시가계는 은행과 투신, 증권, 종금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금융자산을 보유한 농가의 23.1%가 농, 수, 축협을 이용하는 반면 도시가계는 농가의 1/5수준에 불과하며 우체국을 이용하는 도시가계의 비율도 농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저축기관으로 은행을 선택한 농가의 비율은 도시의 절반수준 이하이며 투신, 증권, 종금은 도시가계에 비해 1/7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금융기관선택행동의 차이는 농촌이나 도시 개별가계의 특성에서

기인하기보다는 주어진 금융시장환경의 근접용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는 농가와 도시가계간에 차이를 보이나 이용 금융기관별 평균예금보유액은 투신, 증권, 종금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들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예금상품은 주로 최저한도액이 있는 고가의 상품으로 어느 정도 금융자산이 축적된 경우에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가계의 경우 보유액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예·적금 다음으로 많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보험으로 표본농가의 46.6%가 보험을 보유하고 있



으며 이들의 평균보험보유액은 468만원이었다. 그러나 도시가계는 농가보다 보유비율이 유의하게 높으나 보유액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험선택행동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보험을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누어 농가와 도시 가계의 선택행동을 살펴보았다(표4참조). 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을 의미하며 저축성보험은 교육보험, 연금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의 성격을 겸비한 연금보험(생명+연금보험)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농가표본의 14.9%가 보장성보험 즉 생명보험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도시가계는 이보다 두 배 정도가 많은 28.6%가 생명보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축성보험도 농가에 비해 도시가계의 보유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보험과 생명+연금보험을 보유한 농가의 비율이 도시에 비해 낮았다. 이를 통해 볼 때 농가는 도시가계에 비해 보험을 통한 위험대비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4〉 보험선택행동의 차이

단위 : 빈도(%) / 만원

보험의 종류		보유가구비율			보유가구의 평균보유액		
		농가 (n=537)	도시 (n=2088)	$\chi^2$	농가	도시	t-값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80 (14.9)	597 (28.6)	41.85***	345.3	282.5	0.99
저축성보험		142 (26.4)	818 (39.2)	29.86***	418.9	536.9	-1.73
	교육보험	53 (9.9)	390 (18.7)	23.63**	489.7	475.2	0.12
	연금보험	86 (16.0)	419 (20.1)	4.51*	285.1	362.2	-1.59
	생명+연금보험	25 (4.7)	227 (10.8)	19.02**	360.3	449.6	-0.83

\*\*\*  $p < 0.01$  ; \*\*  $p < 0.05$  ; \*  $p < 0.1$

보험 다음으로 많은 농가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계·사채, 그리고 주식·채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가계의 이들 자산에 대한 보유비율은 농가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평균보유액에서는 도농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주식·채권의 경우 농가와 도시가계 모두 보유가구의 비율은 가장 낮지만 보유액은 가장 높게 나타나 주식·채권투자 농가는 평균 3896만7천원을 그리고 도시가계는 유의하게 많은 5768만3천원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농가가 도시가계에 비해 위험회피성향이 큼을 알 수 있다.

총자산의 경우 표본농가의 평균보유액은 7천3만9천원으로 도시가계의 평균보유액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금융자산보유액 및 실물자산보유액과 비교해 볼 때 농가의 총자산보유액이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소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계의 비율

이 높고 농가의 실물자산 보유비율이 도시가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아 도시가계의 총자산에 대한 실물자산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 2. 농가와 도시가계의 부채선택행동의 차이

농가와 도시가계의 부채선택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부채를 공여형태에 따라 현금부채와 판매신용으로 나누고 현금부채는 차입처에 따라 다시 금융기관, 사채, 비금융기관부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5〉와 같다.

전체 표본농가의 59%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현금부채는 표본가계의 54.8%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가계에 비해 보유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현금부채의 차입처별로 살펴보면 농가가 도시가계에 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반면 도시가계는 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

〈 표5 〉 부채선택행동의 차이

단위 : 빈도(%) / 만원

부채의 종류	보유가구비율			보유가구의 평균보유액		
	농가 (n=537)	도시 (n=2,088)	$\chi^2$	농가	도시	t-값
현금부채	294 (54.8)	778 (37.26)	54.07***	1,793.2	1,995.3	-0.83
금융기관	278 (51.8)	624 (29.9)	90.70***	1,559.9	1,743.4	-0.93
사  채	49 ( 9.1)	215 (10.3)	0.65	1,816.2	1,394.7	0.95
비금융기관	6 ( 1.1)	87 ( 4.2)	11.62***	758.3	1,892.6	-0.96
판매신용	68 (12.7)	421 (20.2)	15.85***	223.1	128.3	2.30*
총  부  채	317 (59.0)	961 (46.0)	28.93**	1,711.0	1,671.6	0.18

\*\*\* p < 0.01 : \*\* p < 0.05 : \* p < 0.1

는 농가에 비해 도시가계가 상대적으로 직장 등의 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은 도농간에 차이가 없었다. 농가와 도시가계가 보유한 총부채와 현금부채 그리고 차입처별 현금부채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입처는 비록 다를지라도 보유한 현금부채액은 농가와 도시가계가 같음을 알 수 있다.

판매신용의 경우 위와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먼저 보유가구비율을 볼 때 농가의 보유비율이 도시가계보다 낮아 농가는 12.7%가 판매신용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도시가계는 이보다 유의하게 높은 20.2%가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균판매신용잔액은 농가가 도시가계에 비해 유의하게 많아 판매신용을 이용하고 있는 표본농가의 가구당 평균 223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가계는 128만원의 판매신용잔액이 남아 있다. 판매신용이란 할부 및 외상 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로 도시가계가 시장환경적인 측면에서 근점용이성이 크기 때문에 이용비율이 농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농가의 경우 생산재를 구매하기 위해 판매신용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자료에서는 소비성 부채와 생산성부채를 구분할 수 없지만 농가의 판매신용의 상당 부분은 생산성부채에 기인하는 것으로 채무액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 3. 농가의 자산 및 부채선택행동 결정요인

앞 절에서는 농가와 도시가계의 자산 및 부채 선택행동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농가와 도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도시가계와 차별화된 자산 및 부채선택행동을 보이고 있는 농가의 자산 및 부채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예·적금, 주식·채권, 계·사채, 보험, 실물자산, 현금부채 및 판매신용의 보유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실시한 로짓분석 결과는 다음 〈 표6 〉과 같으며  $\chi^2$ 검증 결과 모든 실증분석모형의 적합성이 입증되었다.

농가의 예·적금보유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계특성 중 가구주연령과 가계소득으로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예·적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컸다. 보험을 보유한 가계의 경우 예·적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현금부채보유여부는 예·적금보유여부와 보완적관계를 그리고 판매신용보유여부는 예·적금보유여부와 대체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판매신용을 이용하고 있는 가계일수록 예·적금을 보유할 비율이 낮았으며 현금부채를 보유한 가계일수록 예·적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예·적금을 보유한 경우 현금대출을 위한 담보제공이 용이하며 또한 현금으로

농가의 자산 및 부채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월부나 외상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게 된다.

농가의 주식·채권투자결정은 가구주의 연령과 가계소득 및 실물자산보유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주식·채권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계소득이나 실물자산이 많은 경우 오히려 주식·채권투자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의 투자 성향이 안전추구형이며 실물자산이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 선호되는 투자안임을 시사한다.

농가의 예·사채이용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가구주의 혼인상태 및 판매신용보유여부로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많거나 가구주연령이 높은 가계일수록 계·

사채를 이용할 확률이 높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거나 미혼인 경우보다 그리고 판매신용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계·사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계나 사채는 그 특성상 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투자행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농가의 보험보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연령과 가계소득 및 예·적금 보유여부이다. 가구주연령이 높을수록 보험을 이용하여 위험대비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면 순자산이 많은 경우 그리고 예·적금을 보유한 경우에 보험을 가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산을 많이 보유함으로써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위험관

〈 표 6 〉 농가와 도시가계의 자산 및 부채보유여부에 대한 logit 분석결과

독립변수	예·적금	주식·채권	계·사채	보험	실물자산	현금부채	판매신용
가구원수			+++			---	
가구주연령	+	+++	+++	+++	++	++	+++
가구주혼인상태 (미혼) (무배우기혼)			---				
가구주성별 (여성)							
주거보유여부 (보유)					++		
가계소득	---	--		---	+++		
순자산					+++		
예·적금보유여부				--	+++	+++	--
주식·채권보유여부							
계·사채보유여부							-
보험보유여부	-						
실물자산보유여부		-				---	
현금부채보유여부	+++				---		
판매신용보유여부	--		-				
$\chi^2$ (df=14)	133.41***	529.26***	430.49***	344.85***	373.77***	84.00***	396.67***

(주) +와 -는 각각 설명변수의 영향의 방향을 의미하며 부호의 갯수는 유의도를 나타냄.  
 $p < 0.01$  : +++ / --- ;  $p < 0.05$  : ++ / -- ;  $p < 0.1$  : + / -

리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며 예·적금을 보유한 가계도 같은 맥락에서 보험대신 예·적금을 보유하고 하겠다.

농가의 실물자산 보유여부는 가구주연령과 주거보유상태, 순자산 및 예·적금보유여부와 현금부채보유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구주연령이 높을수록, 순자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가를 보유한 경우에 실물자산을 보유할 확률이 컸다. 또한 예·적금을 보유할수록 그리고 현금부채가 없는 가계일수록 실물자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농가의 경우 실물자산이란 자가를 보유한 다음에 축적하는 자산이며 실물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부채를 사용하는 성향이 낮고 또한 실물자산을 보유한 경우 유동성자산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실물자산 보유가계의 재정적 지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농가의 현금부채이용여부는 가구원수와 가구주연령, 예·적금보유여부 그리고 실물 자산보유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실물자산을 보유한 가계일수록 현금부채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예·적금을 보유한 가계일수록 현금부채를 이용할 가능성이 컸다.

농가의 판매신용이용여부는 가구주연령과 예·적금보유여부 및 계·사채보유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연령이 높을수록 판매신용을 이용하는 확률이 높았으며 예·적금을 보유하거나 투자수단으로 계·사채를 이용하는 경우 판매신용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았다. 즉 유동적인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유동성제약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할부나 외상으로 재화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위의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농가의 자산 및 부채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가구주의 연령으로 연령이 높은 가계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보유할 가능성도 높을 뿐 아니라 부채의 이용가능성도 높았다. 다음으로, 예상과는 달리 가계소득은 금융자산의 보유여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농가의 현금선호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과 부채수요의 상호

연계성도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는데 서로 다른 자산간의 수요나 서로 다른 부채간의 수요에서 상호연계성이 나타나기 보다는 자산과 부채간에 수요의 상호연계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현금부채와 판매신용은 대체성이 없었으며 농가의 경우 이들을 사용하는 목적이 각기 다를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자산 및 부채선택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자산 및 부채보유 여부와 보유액을 파악하였으며, 도시가계와의 자산 및 부채 선택행동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농가의 자산 및 부채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해 보았다. 본 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가에 좀더 바람직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제언을 해보았다.

첫째, 농가는 도시가계와는 다른 자산선택행동 보였다. 특히 농가는 도시가계에 비해 모든 종류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계의 비율이 낮으며 이용하는 금융기관도 다르게 나타났다. 금융시장환경의 차이를 반영하여 도시가계는 주로 은행예금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반면 농가는 주로 농수축협예금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도시가계와 농가 모두 주식과 채권을 보유한 가계는 적지만 투자액은 상당하여 투자위험에 따른 손실 발생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는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농가의 경우 소수만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가계가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의 보험에 대한 재인식이 요구된다.

둘째, 부채선택행동에서도 농가는 도시가계와 다른 양상을 나타내 농가는 도시가계에 비해 일반적으로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이 더 높으며 시장적인 요인에 의해 판매신용보다는 현금부채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계와는 달리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실물자산까지도 처분해야하는 상황이다. 즉 평균

부채보유액은 도시가계에 비해 많지만 보유금융 자산은 작아 도시가계에 비해 채무부담이 더욱 큰 상태이며 농가의 부채보유는 소득이나 순자산수준에 관계없이 보유행동을 하고 있다.

셋째, 농가의 자산 및 부채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가구주의 연령으로 연령이 높은 가계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보유할 가능성도 높을 뿐 아니라 부채의 이용가능성도 높았다. 다음으로, 예상과는 달리 가계소득은 금융자산의 보유여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농가의 현금선호를 나타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산과 부채수요의 상호연계성도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는데 서로 다른 자산간의 수요나 서로 다른 부채간의 수요에서 상호연계성이 나타나기보다는 자산과 부채간에 수요의 상호연계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현금부채와 판매신용은 대체성이 없었으며 농가의 경우 이들을 사용하는 목적이 각기 다를 수 있다.

농가가 좀더 바람직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가 스스로가 위험에 대한 인식을 바로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도시가계에 비해 농가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농업노동의 특성 상 소득유입의 불규칙하며 대체소득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대비가 더욱 필요하다. 다음으로, 금융자산의 증대와 함께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신용시장이 도시와 상당히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어 도시가계와는 다른 접근법이 이용되어야겠다. 셋째, 농촌의 금융시장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농가는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다양한 금융기관을 접할 수 없는 시장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농촌에 좀 더 다양한 금융자산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많이 이용하는 농수축협이나 우체국으로 하여금 타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은행업무 이외에 보험이나 증권사의 업무를 결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겠다. 마지막으로, 공금융이나 사금융을 통한 자산의 축적보다는 현금을 선호하고 있는 농가를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금융기관에

서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야겠다.

## 참 고 문 헌

- 김규황(1995), 소득변화가 한국가계의 금융투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 연대석사논문.
- 김순미(1987), 도시가계의 금융자산선택행동에 관한 연구(도시중산층가계를 중심으로), 이대박사학위논문.
- 김정숙(1996), 주부의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 및 저축동기가 가계의 저축율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2), 245-259.
- 박정식(1993), 현대재무관리(제5판), 서울: 다산출판사.
- 성영애·양세정(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207-219.
- 양세정·이영호(1996), 가계저축규모의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4(2), 201-215.
- 양정선(1992), 체계론에 기초한 도시가계의 저축 및 투자행동 분석, 이대석사논문.
- 이계식(1986), 도시가계의 저축행태분석, 한국개발연구, 8(4), 16-40.
- 이명훈(1985),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저축행태 분석,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8월호, 22-44.
- 이필상(1994), 재무관리(신정판), 서울: 박영사.
- 정운영(1996), 도시가계의 투자행동(결혼초기와 중기의 비교), 전남대석사논문.
- 정은주(1991), 위험태도에 따른 가계의 투자행동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논문.
- 최현자(1996),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59-73.
- Avery, R. B. & Kennickell, A. B. (1991), Household saving in the U.S. *Reviews of Income and Wealth*, 37(4). 409-432.
- Avery, R. B., Elliehausen, G. E., & Kennickell, A. B., (1987), October, Changes in consumer installment debt: Evidence from

- the 1983 and 1986 Survey of Consumer Finances. *Federal Reserve Bulletin* : 261 - 278.
- Bryant, K. W., (1986), Assets and debts in a consumer portfolio.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0(1) : 19 - 35.
- Chang, Y. R. (1994), Saving behavior of U. S. households in the 1980s : Results from the 1983 and 1986 Survey of Consumer Financ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45 - 64.
- Choe, H. and Johnson, D. P., 1992, The demand for consumer installment credit : Stock adjustment model. In V. Haldeman (Ed.). *Proceedings of the 38th Annual Conference of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pp 155 - 162). Columbia, Missouri : University of Missouri.
- Davis, E. P. & Schmn, W. R. (1987), "Savings behavior and satisfaction with savings : A comparison of low and high-income group",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5(4), 247 - 256.
- Dunkelberg, W. C. and Stafford, F. P., (1971), Debt in the consumer portfolio : Evidence from a panel study. *American Economic Review*, 61(4) : 598 - 613.
- Hira, T. K., (1987), Money management practices influencing household asset ownership,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1, 183 - 194.
- \_\_\_\_\_, (1992), Cause and Effects of Consumer Bankruptcies : A cross cultural comparison. *J. of Consumer Studies & Home Economics*, 16, 229 - 243.
- Luckett, C. A. and August, J. D., (1985), The growth of consumer debt. *Federal Reserve Bulletin*, June : 389 - 402.
- Pollin, R., (1988), The growth of U. S. household debt : Demand-side influences. *Journal of Macroeconomics*, 10 : 231 - 248.
- \_\_\_\_\_, (1990), *Deeper in debt : The changing financial conditions of U. S. households*. Washington, DC : Economic Policy Institute.
- Prather, C. G. (1990), The Ratio Analysis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e Statements :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 53 - 70.
- Smith, J. F., 1979, Consumer credit in America : Evidence of financial soundness. *Journal of Retail Banking*, 1(2) : 41 - 48.
- Sullivan, C. & Worden, D. (1986),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consumer debt use*, (Working Paper No. 52). West Lafayette, IN : Purdue University, Credit Research Center.
- Watts, H. W. and Tobin, J., (1960), Consumer expenditures and the capital account. in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Consumption and Saving* Vol. II, Philadelphia : Wharton School of Finance and Commer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 Weagley, R. O. & Gannon, C. F. (1991), Investor portfolio allocatio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131 - 154.
- Xiao, J. (1996), Effects of Family Income and Life Cycle Stages on Financial Asset Ownership,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21 - 30.
- \_\_\_\_\_, (1995), Patterns of household financial asset ownership,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6, 99 - 106.
- Yu, J. (1993), Determinants of household's asset/debt holdings and debt burden, *Proceedings of the 39th Annual Conference of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399 - 401.